

2020 새 설계

정헌을 익산시장

# “친환경 명품도시 조성... 익산시민 행복지수 높일 것”



“환경 친화 도시와 명품 관광도시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정헌을 익산시장은 “2020년을 여는 사자성어를 ‘동심만리(同心萬里)’로 선정했다”면서 “시민의 마음을 한 데 모아 더 나은 익산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지방채 전액 조기상환과 신청사 건립 추진, 전북 지역 최초로 도입한 마을전자상거래의 성공적인 안착 등을 통해 익산의 저력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과는 시민의 관심과 격려의 결과로 평가하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 시장은 올해 시장 목표로 ‘친환경 명품도시’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 시장은 “익산 2020프로젝트는 균형발전이라는 틀 내에서 친환경 명품도시를 담고 있다”며 “올해는 시민 행복지수를 끌어올릴 명품도시 조성에 보다 박차를 가해 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환경문제에 의해 떨어진 익산시의 이미지 회복을 통해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겠다는 계획이다.

정 시장은 환경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압이

지방채 전액 상환 건전재정 확보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 도시

세계 식품산업 메카 행정력 집중

집단 발병한 장정마을을 환경 시범마을로 만들고, 낭산 폐석산의 불법 폐기물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의 이런 시정 목표는 허리띠를 졸라매 확보한 익산시의 건전한 재정력이 뒷받침이 될 전망이다.

정 시장은 “취임당시 1593억원의 지방채를 당초 계획보다 7년이나 앞당겨 전액 상환했다”며 “건정 재정은 익산시가 시민 행복지수를 끌어올리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 “500만 관광객이 찾는 명품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식품산업의 도시, 전국 최고의 환경친화도시라는 3가지 테마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며 “익산시의 2020년은 지난해까지 추진한 사업들의 결실을 맺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기회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전한 재정을 토대로 세계유산과 무왕의 도시라는 역사관광과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 시민 참여형 전국대회 유치 등 도시 브랜드를 한껏 끌어올리겠다는 설명이다.

500만그루 나무 심기와 명품 가로수 길 및 도시 숲 조성,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의 사업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환경중심의 조직 개편과 백제 무왕 도시의 정체성 확립, 세계 식품산업의 메카,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거점역 등 미래발전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민생을 살피고 튼튼한 지역경제의 구현, 공동체 역량·의지 결집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시장 “500만 관광객이 찾는 명품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식품산업의 도시, 전국 최고의 환경친화도시라는 3가지 테마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며 “익산시의 2020년은 지난해까지 추진한 사업들의 결실을 맺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기회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시장은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농업 경쟁력 확보, 시민 누구나 혜택 받는 복지 선도시 등 시민 행복지수를 끌어올리는 살기

2020년 주요 사업은

- ▲ ‘친환경 명품도시’ 구축
- ▲ 역사문화도시 정체성 확립과 500만 관광도시 조성
- ▲ 세계 식품산업 메카로 발돋움
- ▲ 튼튼한 지역경제 확립
- ▲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농업 경쟁력 확보
- ▲ 행복지수를 끌어올리는 살기 좋은 도시 조성 박차

좋은 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호남 3대 도시의 명성에 걸맞은 익산시를 조성해 ‘익산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기틀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헌을 익산시장은 “작은 물결이 모여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 내듯 시민의 화합과 단결은 곧 익산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정읍시, 농협과 손잡고 지역 농업발전 이끈다

생산·판매·홍보·유통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정읍시가 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해 농협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정읍시는 황도현·태인·신태인·정읍원에 농업, 순정축협과 지난 14일 농·축산·원에 농업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농업발전을 위한 생산·판매·홍보·유통구조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상호 유대 관계 강화, 시의 기술 지도를 통한 전반적 업무제휴, 환경보존,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 지원을

통한 지역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재기 황도현농협 조합장은 “농촌이 주는 환경과 생태, 전통과 경관, 그리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치는 값이 매길 수 없는 것이다”며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농촌을 농업인과 도시민의 복합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농협과 협력이 필수요건이다”며 “각 지역농협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지난 14일 유진섭(왼쪽 세번째) 정읍시장과 황도현·태인·신태인·정읍원에농협 조합장 등이 농·축산·원에농업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 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들어준다

현역병·의경 등 2500명 대상 일괄 부담

익산시가 올해부터 군복무 청년들을 위한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인 익산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종류에 따라 보상해 주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지난해 조례 제정과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확보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1월 중 보험사를 선정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이다.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상해보험이 시행되면 약 2500명 정도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청년들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전역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부담한다.

또 군복무 중 휴가나 외출을 했을 때 입은 상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 경영난 겪는 순창지역 中企 20억원 지원

군,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연 4% 이자 보전

순창군이 경기 불황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순창군은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육성자금 지원신청을 받는

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연 20억원 규모 한도로 운영되며, 순창군 관내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지원할 수 있다.

시설자금은 기업당 5억원 한도로 연 4% 이자액을 보전하며, 상환 기간은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또 운영자금은 3억원 한도로 4%의 이자액을 보전하며, 상환은 3년 이내 1년거치 2년 균등분할로 상환한다.

다만 기존에 자금유지를 승인받았거나 대출 후 미상환 업체는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기금지원 대상업체 선정은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이뤄지며, 업체 선정과 함께 융자금액을 결정해 해당 업체와 금융기관에 통보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유치계에 제출하면 된다.

송정홍 순창군 경제교통과장은 “경기 여건 악화 등 중소기업 경영 여건이 좋지 않아 관련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 남원시, ‘남원장학숙’ 신규 입학생 34명 모집

남원시는 31일부터 내달 6일까지 2020년 서울에 소재한 남원장학숙의 신규 입학생을 모집한다.

올해 신규 입학생 선발예정 인원은 34명으로 2월 11일 선발한다.

대상은 수도권 소재(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제 이상의 고등교육법상 대학(교)·대학원에 입학예정인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다.

희망자는 부·모·학생 중 선발 공고일 기

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 남원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입사지원이 가능하다.

신규 입학생은 성적과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선발된다. 1순위(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고, 2순위는 초·중학교 졸업자 중 관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3순위는 지역 초등 또는 중학교 졸업자이다.

방문접수는 31일까지, 인터넷 접수는 다음달 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